



윤석민	이범호	심동섭	김상현	안치홍	손영민	이종범	양현종
100%↑ 3억8000만원	23.8%↑ 4억9500만원	200%↑ 7500만원	동결 2억원	25%↑ 1억2500만원	42%↑ 1억3500만원	15.8%↓ 1억6000만원	17.6%↓ 1억4000만원

“8년차 연봉 최고 기록에는 실례했지만 팬들의 인정을 받은 것에 만족합니다.”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윤석민이 15일 1억9000만원에서 100% 인상된 3억8000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끝냈다.

2011시즌 투수 4관왕의 대기록을 달성하며 MVP에 등극했던 윤석민의 연봉은 스토브리그 관심사였다. 이승엽이 가지고 있는 8년차 최고 연봉인 4억1000만원 경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팀 준플레이오프 탈락 여파로 인해 ‘연봉 기록’ 달성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윤석민의 인상액(1억9000만원)은 역대 팀내 투수로서는 최고 인상액이며 투·타 포함 2번째다. 역대 최고 인상액은 지난 2010시즌 최희섭이 기록한 2억원이

윤석민 “계약 마쳐 흥가분… 훈련에 전력”

KIA 타이거즈 재계약 협상 속속 마무리… 서재응·한기주·최희섭·이용규만 남아

다. 투수 최고 인상액은 2010시즌 유동훈이 기록한 1억2000만원이다.

윤석민은 “최고 대우를 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해를 보냈지만 팀 성적에서 아쉬움이 남았다”며 “빨리 연봉 계약을 마무리하고 흥가분한 마음으로 스프링캠프에 임하고 싶었

다”고 밝혔다.

또 “올 시즌에는 개인 성적과 팀 성적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팬들의 응원과 관심에 감사 드린다. 스프링캠프에서 올 시즌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오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한편 KIA는 15일 18명과 연봉 협상을 마무리 하면서 2012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중 로제즈를 제외한 55명 중 51명과 재계약(재계약율 93%)을 끝냈다.

이범호가 지난 시즌 4억원에서 23.8% 인상된 4억9500만원에 도장을 찍으면서 ‘연봉킹’ 자리를 지켰다. 투수 심동섭은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인상된 7500만원을 받으면서 팀내 최고 인상률(200%)을 기록했다.

이외에 손영민과 안치홍이 각각 4000만원과 2500만원인상된 1억3500만원과 1억2500만원에 연봉 도장을 찍었다. 김희결과 조태수는 각각 1500만원과 500만원 인상

된 7000만원과 4300만원에 재계약을 마쳤다.

김상훈과 김상현은 지난 시즌 받았던 3억2500만원과 2억원으로 각각 연봉이 동결됐다.

이종범·김원섭·유동훈·양현종은 연봉이 삭감됐다.

이종범이 1억9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삭감됐고, 김원섭은 1000만원 삭감된 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유동훈과 양현종은 각각 3000만원 삭감된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에 재계약했다.

미계약자는 서재응·한기주·최희섭·이용규 등 4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5일 전지훈련을 위해 미국 애리조나행 비행기에 오른 KIA 선수단이 출발에 앞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최희섭은 가지 않았다

KIA 선수단 스프링캠프 출발… 트레이드 가능성

최악의 ‘결원사태’는 없었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15일 스프링캠프를 위해 미국 애리조나행 비행기에 올랐다.

집 수송 작업을 위해 오전 7시30분부터 경기장에 소집된 선수단은 9시 기념촬영을 한 뒤 구단버스를 통해 인천으로 출발했다.

여느 해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전지훈련 출발을 앞둔 주말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연봉협상과 최희섭 논란으로 숨가쁘게 돌아갔다.

캠프 출발 이틀 전까지 골든글러브 3인방 윤석민·이용규·안치홍 등을 비롯해 주축 선수 9명은 연봉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했다.

구단이 “미계약자는 캠프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밝힌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캠프 결원사태까지 예고됐었다.

그러나 주말사이 5명의 선수가 적극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안치홍·손영민·이종범·김희결이 한발 물러났고, 연봉협상의 정점이었던 윤석민도 100% 인상안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윤석민의 거취가 결정되면서 KIA는 한숨 돌렸지만 서재응·이용규·한기주와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선동열 감독이 중재자로 나섰다. 연봉협상을 놓고 마찰이 계속되자 선 감독이 직접 “미계약자도 캠프에 합류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 감독의 요청에 따라 구단과 미계약자 선수들은 줄타기를 잠시 멈추고 캠프 참가를 위한 짐을 꾸렸다.

예정대로 무사히 선수단 출국이 이뤄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재응과 한기주가 삭감안에 반발하고 있고, 이용규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인상액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서재응은 “팀 성적이 기대에 미치

지는 못했지만 불펜 역할도 맡는 등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4000만원 삭감안에 서운하고 아쉽다”고 심경을 언급했다.

한기주는 “예정된 재활 과정이 있었고, 무사히 복귀를 했다. 많은 활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주어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삭감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규도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구단의 입장과 큰 차이가 난다. 쉽지 않을 것이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미계약자 중 한 명인 최희섭도 뜨거운 감자. KIA는 새출발을 앞두고 ‘최희섭 논란’ 종식을 모색했지만 최희섭의 확실한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말 사이 혼란이 빚어졌다.

‘최후통첩’을 한 구단은 트레이드와 미계약부류 선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만간 최희섭의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인 맞아? 배상문 8위 소니오픈 3R

2012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데뷔한 배상문(26·캘리포니아)이 소니오픈(총상금 550만달러) 3라운드에서 공동 8위에 올랐다.

배상문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인근 와이알라이 골프장(파70·7068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뽑아내 4언더파 66타를 쳤다.

사흘 내내 60대 타수를 기록한 배상문은 8언더파 202타를 기록해 스티브 스트리커, 키건 브래들리(이상 미국) 등 다른 선수 10명과 함께 공동 8위로 3라운드를 마쳤다.

12언더파 198타로 공동 1위인 제프 매거트, 매트 에브리(이상 미국)와는 4타 차이로 마지막 날 경기 결과에 따라 역전도 가능하다.

초반 8개 홀에서 파 행진을 하던 배상문은 9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았고 17, 18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아 3라운드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최경주(42·SK텔레콤)는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기록, 5언더파 205타가 돼 공동 50위에서 공동 34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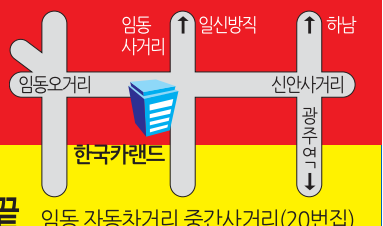
/연협뉴스



장미, 금빛질주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린 제1회 동계유스올림픽 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장미(16·의정부여고)가 금빛질주를 하고 있다. /연협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양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루마션팅, 3M코팅, 모비스션팅,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자동차경비일체, 빗대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비뒀방울, 천장방울,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 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72만원 ⇒ 12만원

▶ 아이나비K100, 3D(8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만도정음MD3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만도지니 J7,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모비스폰투스 PU-7, 3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모비스폰투스 K-7, 2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매립장착모델 전자종기능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본인네비 매립 = 7만원 ⇒ 12만원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최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합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E7500 25만원

▲ E770B 40만원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E1 7만원

▲ E2620 10~14만원

▲ E7 37만원

▲ ET 17만원